

다이옥산 배출량 집계자료 “एं터리”

코오롱 · 웅진 · 도레이새한 감축에도 방류수 농도 증가 ... 의혹 가중

낙동강 다이옥산(Dioxane) 검출 파문과 관련해 다이옥산 배출원이 구미와 김천의 화섬 생산기업 외에 다른 배출원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월15일 기준으로 구미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된 1,4-Dioxane은 145.3kg인 반면 구미와 김천 화섬 생산기업들의 배출량은 총 52.6kg으로 조사돼 화섬 생산기업 외에도 상당량의 다이옥산을 배출하는 곳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다이옥산 과다 검출이 처음으로 불거진 2004년 다이옥산 주 배출원이 구미와 김천의 화섬 기업이라며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구미와 김천의 화섬 생산기업들이 다이옥산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한 2009년 1월13일 이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다이옥산 농도가 낮아지지 않아 또 다른 배출원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비저장조를 충분히 확보해 놓은 코오롱 구미공장은 1월13일부터 다이옥산이 함유된 폐수를 아예 배출하지 않고 있고, 도레이새한이나 웅진케미칼 등 다른 화섬기업들도 감산 등을 통해 발생량을 줄이거나 저장소에 일부 보관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구미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다이옥산 농도는 1월14일 리터당 713 μ g에서 16일 556 μ g까지 떨어진 후 17일 653 μ g, 19일 706 μ g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어 다이옥산을 배출하는 다른 제조기업이 존재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합섬 생산기업의 분석 자료가 부족해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오염원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2>